

상하이 예술특구, 레드타운 vs. 타이강루

작성자 [레이디 L](#) | 작성일 [2012-04-16](#) | 댓글수 [3](#) | 카테고리 [상하이](#), [예술/문화](#), [중국](#)

중국 '상하이' 하면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와,
세계의 공장으로 대표되는 경제대국의 이미지를 흔히 떠올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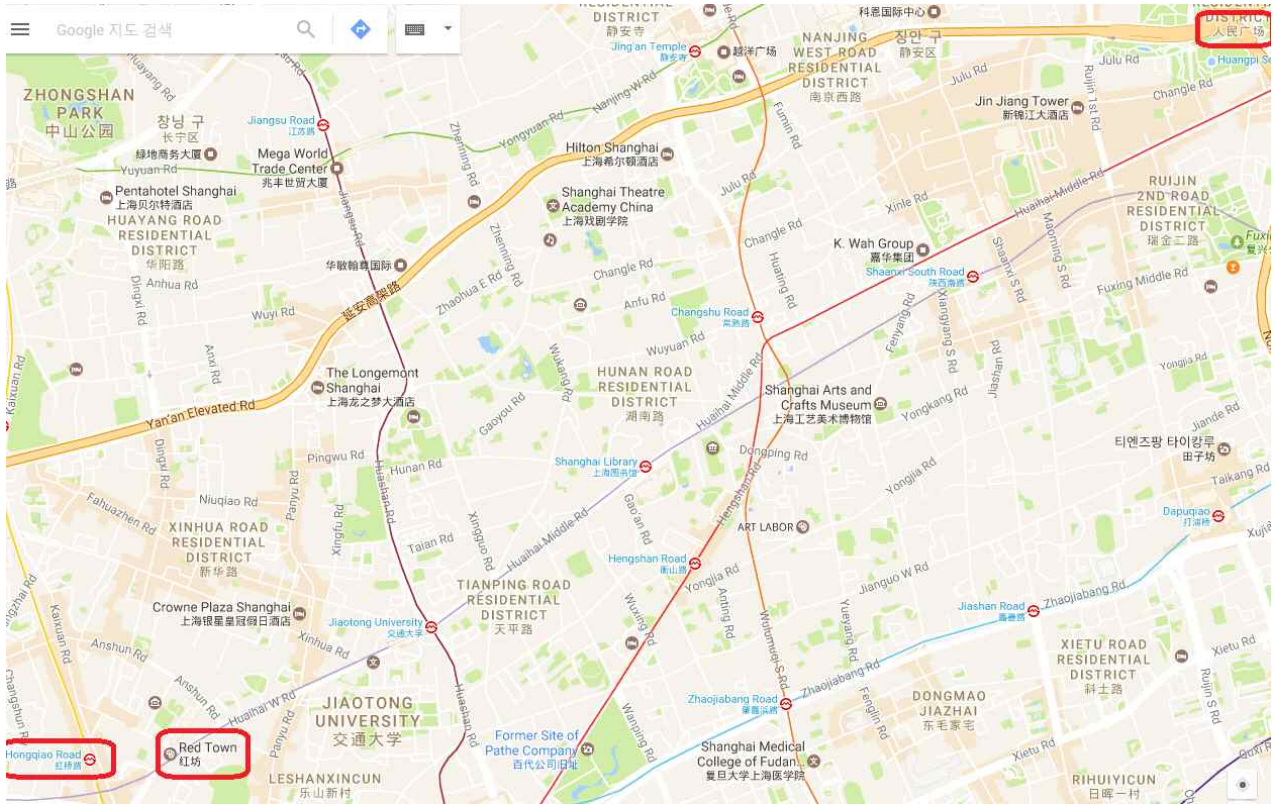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경제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해온 분야가 있으니, 바로 문화/예술 산업이죠!

중국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몇 년 전부터 젊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 적극적인 투자의 결과 상하이에만 무려 80곳이 넘는 복합예술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예술단지 2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홍팡(紅坊)이라 불리는 레드타운과 타이강루 예술인거리 입니다!



80년대 말까지 철강공장이었던 이 레드타운은
2006년 예술 문화 구역으로 조성되며
트랜스포머처럼 완벽한 복합예술단지로 변신했습니다.



=====

상하이 도심 주변 곳곳에 있는 예술 단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은 바로 이 타이강루입니다.

타이강루는 우리나라의 홍대나 삼청동과 같은 곳인데요,
사진 및 그림 갤러리와 공방이 모여있는 예술인들의 아지트이자,
이색적인 카페와 펍들이 미로 같은 골목에 가득 들어차있어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좁은 골목에 자리한 크고 작은 노천카페에는
한가로운 담소를 나누고, 브런치를 즐기는
상하이니즈들과 외국인들로 가득차 있었답니다.
마치 유럽의 어느 골목에 들어선 듯,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벌써 네 번째 상하이를 방문했지만,
이 타이강루 만큼은 항상 빼놓지 않고 찾아가곤 합니다.

